

[로스쿨 합격기]

## 입시의 불확실성 앞에서

정 주 영

- 성균관대학교 법대 법학과 졸업
-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9기



### I. 들어가며

수차례 고민 끝에 원고를 쓰기로 하였다. 회사를 다니며 준비했던 점이나, 사법시험 실패 후 도전한점, 수차례 입시 끝에 로스쿨에 합격한 점들이 비슷한 상황에 있는 누군가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적절한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다.

### II. 학 점

대학교 재학 중에는 동아리 활동, 사법시험 준비 등을 핑계로 학점 관리를 하지 않았다. 학점이 중요한 줄도 몰랐다. 4학년이 되고 보니 이 정도 학점으로는 갈 곳이 없겠구나 걱정이 되어 이미 학점을 많이 채워두어서 수업을 많이 들을 필요가 없었으나 학점을 올리기 위해

4학년 1, 2학기 각 19, 21학점을 들었다. 4학년 때는 여러 가지 대외활동도 병행했는데 기관에서 공문이 나와 출석이 인정될 수 있었음에도 혹시라도 학점에 불이익이 있을까봐 택시를 타고 학교를 수회 왔다갔다 하면서 수업에 필참했다. 과제가 3가지 책 중 한권을 읽고 리포트를 내는 것이라면 이럴 경우 3권을 다 읽고 리포트를 3개 제출하였다. 분량이 5매라면 10매를 제출하였다. 그만큼 절박하게 학점관리를 하였다. 이렇게 해서 법대생치고는 괜찮은 학점을 만들었으나, 진작부터 로스쿨을 준비한 비법대생 사이에서는 학점으로는 전혀 우위를 점할 수 없는 수준이었던 것 같다. 아직 학점을 바꿀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최선을 다 하길 바란다.

### Ⅲ. 리트(법학적성시험)

로스쿨 입시를 준비해야겠다고 생각 한 뒤에 다른 친구들처럼 인터넷 강의를 등록하고 책을 사서 준비를 시작하였다. 그 당시 19학점의 수업을 듣고 있었고 대외활동도 병행하면서 토익 학원도 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인터넷강의를 매일 듣는 것이 쉽지 않았고 종합반 같은 분량이 많은 강의를 등록하다보니 들을 엄두를 못내기도 하였다. 결국은 언어는 1강정도 들었고 추리논증은 5개정도 강의를 들은 채로 날짜가 지났다. 대신 사설 모의고사에는 항상 참여하였다. 주변 친구들은 스터디도 많이 하였으나 나는 시간이 도저히 안나서 리트준비는 많이 하지 못하였다.

이렇게 준비를 많이 못한 채로 첫 리트시험을 보았는데 의외로 점수가 잘 나왔다. 그러다 보니 내년엔 쳐도 잘 나오겠구나, 이번에는 준비가 덜 되었는데 이번에 안되더라도 내년엔 갈 수 있겠구나 하는 안도감을 가지게 되는 불상사가 발생하였다.

그리하여 결과적으로 첫 입시의 기회를 허망하게 놓치고 말았다. 이번에 꼭 합격하겠다는 생각이 없다보니 원서도 나에게 유리한 입시전형의 학교가 아닌 가고 싶은 학교를 지원하였는데 토익점수도 많이 올리지 못해서 내가 지원한 학교에서는 불리한 점수였다. 입시 준비에만 집중하지 못하고 취업준비도 하고 토익스피킹 학원도 다니고 봉사활동도 하였다. 그러다보니 자기소개서, 면접에 신경을 거의 쓰지 못하였고 결국 불합격하게 되었다.

리트점수는 계속 잘 나올줄 알았다. 다음 해 리트시험까지 성실하게 리트공부를 하고 추천도서도 읽고 했음에도 다음해에 친 리트는 10점이 떨어졌다. 하지만 실수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해에도 리트공부를 꾸준히 하였다. 학원에

서 주최하는 모의고사도 가끔 보았는데 한번은 점수가 상당히 잘 나와서 학원에 상담해주시는 분이 리트공부는 더 이상 하지말고 토익이나 다른 요소들을 준비하라고 말씀해주셨다. 그런데 그 해에 본 리트는 처음 본 리트에 비해 15점이 떨어진 점수가 나왔다. 이 때에는 크게 실망하여 원서도 쓰지 않고 회사에만 충성을 바치겠다고 결심하였다.

나는 리트를 총 4번 보았는데 매년 볼 때마다 더 많이 긴장하고 불안해서 잠도 못 잤다. 점수가 계속 떨어지다보니 리트시험에 회의감이 들었고 이 시험은 적어도 나에게 있어서 만큼은 공부한대로 점수가 나오는 시험이 아니구나 싶었다. 기출문제들도 이미 많이 풀어봐서 암기가 된 상태라 마지막 입시 때는 리트공부를 하지 않기로 하였다. 다만 감을 잃지 않기 위해 수능 언어영역을 푸는 것으로 대체하였다. 역대 수능 문제와 모의고사 문제, 사설 모의고사까지 하니 문제양이 상당히 많았다. 격일로 시간을 재서 듣기문제 외에는 모두 풀었다. 결과적으로 이 방법은 나에게 잘 맞았던 것 같다. 리트언어 문제를 풀다가 수능 언어영역을 풀니까 문제가 쉽게 느껴지고 점수가 일정하게 잘 나와주었다. 그 덕에 자신감도 생겼다.

이렇게 4번째 시험 만에 다시 15점이상 오른 처음 받은 점수대가 나와주었다. 이 때는 혹시라도 시험을 못 봤을까봐 채점하는 게 두려워서 채점을 안하고 성적표가 나온 날 내 점수를 알게 되었다. 리트점수 때문에 이렇게 고생할 줄은 정말 몰랐다. 나같은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서는 이번에 준비가 덜 된 것 같아도 내년을 기약할 것이 아니라 매 입시 마지막이라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야한다. 낮은 리트점수로도 합격한 사례는 내 주변에도 많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 IV. 토익

문과생이라면 특히 상당한 고득점을 해야할 것 같다. 로스쿨 입시 요소 중 성과를 확실하게 낼 수 있는 것이 토익이 아닐까 생각한다. 이정도면 되었다고 안심할 것이 아니고 올릴 수 있는 데 까지 인정되는 기한까지 계속 도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요즘에는 토익점수가 상향평준화 되어 회사에서도, 로스쿨에서도 나정도 점수는 드물지않게 있었다. 막판이 될수록 점수가 안나올 시 불안해지므로 집중해서 빨리 일정점수를 받은 뒤 그리고 계속 시험을 봐서 조금씩 올리는 것을 추천드린다.

#### V. 봉사활동 및 대외활동

나는 봉사활동과 대외활동은 고시공부를 했던 대학생 치고는 참 많이한 편이었다. 사법시험이 안된 이후에는 나도 스펙이라는 것을 쌓아야겠다 싶어서 부지런히 이것저것 많이 하였다. 여러 번 입시를 치르면서 갖게 된 주관적인 느낌은 입시에 큰 도움이 안된다는 것이다. 학점, 토익, 리트점수가 조금 더 좋은 게 훨씬 유리하다는 생각이다. 어떤 학교에서는 내가 너무 많은 봉사활동 확인서와 대외활동 증명서들을 제출하자 접수하시는 분이 '이런거 다 필요없는데' 라고 말씀하시기 까지 했다. 사실 취업에도 큰 영향을 미친 것 같지 않다. 물론 어떤 회사에서는 이런 점들을 굉장히 높게 쳐준 것 같기도 하다. 하지만 좋아서 하는 것이 아닌 이상 입시를 위해 억지로 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 나의 생각이다. 물론 봉사활동이나 대외활동 덕분에 합격한 사람도 있을 테니 참고만 하기 바란다.

#### VI. 자격증

불확실한 리트보다는 확실한 공부를 하고 싶었다. 회사업무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여 입사이후에는 자격증 취득에 매진하였다. 전문자격증에 도전할 순 없어서 투자자산운용사, 재무위험관리사 같은 회사와 병행하여 준비할 수 있는 수준의 자격증 공부를 하였다. 이렇게 따다 보니 입시원서를 제출할 때 6개정도의 자격증을 제출할 수 있었다. 하지만 입시에 도움이 되었는지는 의문이다. 물론 전문자격증이나 최고등급의 제2외국어 자격증은 입시에서 상당히 큰 힘을 발휘하는 것 같다. 하지만 이외의 자격증들은 잘 모르겠다. 나 같은 경우 파생상품 관련 자격증을 딸 때는 비전공자로서 어려움을 많이 느껴 인터넷 강의를 듣고 깊게 공부를 하게 되면서 시간투자를 생각보다 많이 하게 되었는데 로스쿨 입시만 생각한다면 상당히 비효율적이었던 것 같다.

#### VII. 면접과 자기소개서

스터디를 전혀 하지 않다가 면접스터디를 해보았다. 면접 직전 4번 모여서 모의면접을 보는 형식이었는데 서로 예상문제를 물어봐주거나 고칠 점 같은 것을 이야기 해주는 형식이었다. 한번은 답변을 하면서 사안과 비슷한 판례가 떠올라 함께 언급하였는데 스터디원들이 그 점을 칭찬을 해주는 것을 보고 실전 때도 해봐야지 생각하였다. 사법시험 공부 끝에 남은 것은 그래도 판례뿐이었다. 그 해 입시 때는 불합격하였지만, 합격하던 해의 입시 때는 적절한 판례들을 함께 언급하여 주장의 근거로 삼았는데 도움이 되었던 것 같다.

여러 학교의 면접을 보았는데 학교마다 면접의 방식과 분위기가 많이 달랐다. 어떤 학교는 면접이 5분이라고 들었는데 실제로는 3분정도

로 짧게 진행되었고 자기소개서의 내용을 확인하는 정도의 질문이어서 합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형식적인 면접이라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다. 또 다른 학교는 시사문제에 대한 질문이 대부분인 학교도 있었다. 나머지 면접을 본 학교들은 사전에 지문을 읽은 뒤 문제를 풀어 답변하는 형식이었는데 지문의 난이도가 높은 것은 물론이고 면접관 앞에서 메모 없이 논리적으로 말해야해서 이런 유형의 학교들은 면접이 꽤나 힘들었던 것 같고 변별력도 큰 것 같았다. 다른 요소가 부족하여 면접으로 만회할 생각이라면 면접이 형식적인 학교를 지원해서는 안될 것이다. 이런 점에서 보면 학교별 면접 유형이 어떠한지에 대해 잘 파악하여 지원할 때에도 고려하는 것은 물론 그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해야 하는 것 같다.

긴 시간 공들여서 자기소개서를 완성하고 보니 잘 쓴 것 같아 수정할 부분이 없어보였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지 않고 있다가 로스쿨 진학한 친구들 몇 명에게 보여주게 되었다. 그랬더니 이게 웬걸 여기저기 고칠 부분 투성이었다. 내가 보기에 완벽해보여도 다른 사람의 검토가 필요한 것 같다. 또한 취업준비를 하느라 자기소개서를 많이 써보니 쓰는 실력이 점점 늘어나서 마지막 입시 때는 상당히 만족할만한 자기소개서를 완성할 수 있게 되었다. 많이 써보고 검토도 많이 받는 것을 추천한다.

요즘엔 리트부터 면접까지 학교에 대비반이 잘되어있기 때문에 그것만 잘 따라가도 진학에 무리가 없는 것 같다. 우리학교도 로스쿨 입시반이 정말 잘되어있다. 아직 대학교에 재학 중이고 학교에 로스쿨 대비반이 있다면 학교 프로그램 잘 따라가는 것을 추천한다.

## VIII. 취업준비

아직 나이가 어린친구들이라면 상관없지만 대학교 졸업자라면 취업준비와 병행할 것을 강력하게 추천한다. 로스쿨 입시는 불확실하다. 잘나오던 리트점수가 안 나올 수도 있고 생각지 못하게 면접을 망칠 수도 있으며 모든 것이 잘 준비되어 내 점수가 아무리 좋더라도 로스쿨 입시에서 떨어질 수 있다. 떨어지면 다음 입시까지 1년이 걸린다. 그러다보면 몇 년이 훌쩍 지나가버릴 수도 있는 것이다. 요즘엔 로스쿨 입시도 취업도 정말 어렵다. 한쪽만 바라보기엔 너무나 불확실한 것이다. 특히 로스쿨은 입학이 끝이 아니고 입학 후부터 본격적인 시작인데 입시에서 시간을 많이 끈다는 것은 괴로운 일이다. '나에게는 로스쿨 뿐이야'의 경우가 아니라면 반드시 취업준비를 같이 하길 바란다. 사실 취업준비라고 따로 특별한 것이 있는 것이 아니고 로스쿨 지원자라면 취업시장에서도 경쟁력 있는 스펙을 갖춘 경우 일 것이기 때문에 따로 대단한 노력이 필요한 것도 아니라고 생각한다. 대학생분들 중에는 간혹 회사 생활에 거부감을 느끼거나 두려워하는 사람도 있는 것 같다. 하지만 의외로 로스쿨보다도 회사 생활이 나와 잘맞을 수도 있다.

나도 여러 군데를 쓰다가 우연히 들어가게 된 회사였지만 내가 맡은 업무가 좋고 회사 사람들도 좋고 업계가 정말 좋았다. 비록 꿈을 위해 로스쿨 준비를 몰래하였지만 로스쿨에 못가도 이 회사에 평생 다니고 이 업계에 내 인생을 전부 바쳐도 좋을 만큼 회사를 사랑하고 만족했다. 로스쿨에 와보니 회사를 다니다 오신 분들도 상당히 많았다. 휴직하고 온 동기도 있고, 졸업 후 동종업종으로 돌아가려는 동기도 많다. 회사 다닌 것 자체가 경력이 되어 로스쿨 입시에 도움이 되기도 한다. 로스쿨만이 내 길

이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고 취업도 함께 고려하면서 자신의 다양한 가능성과 진로를 탐색하였으면 좋겠다.

## IX. 회사다니며 준비하기

회사다니면서 다른 것을 한다는 것은 정말 쉽지 않다. 신입사원 때는 피곤해서 회사 끝나고 집에오면 푹아떨어져서 아무것도 못했다. 제2외국어 자격증이 입시에 도움이 많이 된다고 하여 퇴근 후 일보어 학원도 6개월 정도 다녔는데 학원에서 거의 즐기만 했다. 여러 번의 시행착오 끝에 방법을 찾아나갔다. 집에 바로 가면 공부를 하기 어렵다는 것을 알고 퇴근 후 집에 가지 않고 바로 독서실에 가서 공부를 하였다. 리트, 토익, 자격증 등의 여러 가지 공부를 하였다. 주말과 휴일은 물론 평일 퇴근 후에도 특별한 일이 없으면 항상 공부하였다. 회사 동기들이나 친구들과 맛집에 가거나 좋은 공연을 보러 다니는 정도가 노는 것의 전부였다. 회사에 출근하지 않는 날은 하루 종일 고시공부하듯이 공부를 하였다. 회사를 다니며 준비한 분들이 모두 이렇게 준비하지는 않았겠지만 나는 사법시험에 안된 것에 좌절을 크게한 편이었고 어떻게든 그것을 만회하여야한다는 생각이 강했다.

회사 업무 자체만으로도 힘들기 때문에 무언가를 병행한다는 것이 쉽지 않다. 어영부영하다가 시간도 금방 지나가버린다. 회사를 다니며 준비하려면 어쩔 수없이 포기해야 할 것이 많은 것 같다. 나의 경우 공부할 시간이 확보가 안되는 점이 가장 힘들었다. 로스쿨 준비를 한다는 이유로 회사생활을 소홀히 할 순 없다. 업무도 하고, 따로 업무를 위한 공부도 하고 회식이나 회사 행사도 참여해야했다. 결국 공부를

하기위해서는 주말과 휴가를 모두 포기하는 수밖에 없었다. 회사를 다니면서 준비하시는 분들은 굳은 결심과 의지가 필요할 것이다.

## X. 입시의 불확실성 앞에서

2017년 입시 때, 나군은 고민이 없었지만 가군에 어느 학교를 쓸지 고민이 많이 되었다. 이번에는 꼭 가야겠구나 싶어서 원래 생각하고 있었던 학교보다 조금 더 안정적인 지원을 하였다. 예전 입시 때 가능성 높은 예비번호를 받고 바로 앞에서 떨어져본 적이 있는 학교였다. 리트점수도 오르고 토익도 오르고 자격증도 따고 경력도 길어지고 어느 점에서 보나 훨씬 점수가 높았다. 입시 상담 때도 확신에 가까운 답변을 받았고, 재학생도 이점수로 떨어질 리는 없다고 하였는데도 예비번호 뒷번호를 받아 탈락하였다. 그 당시에는 의아했는데 생각해보면 입시라는 것이 어쩔 수 없는 불확실성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 인원은 한정되어 있는데 그 해의 지원자풀에 따라서, 면접점수에 따라서, 경쟁률에 따라서 뽑는 사람조차도 매년 결과를 알기 힘든 것이다.

만약 로스쿨입시나 회사 지원에서 떨어진 경험이 있다면 너무 좌절하지 않기를 바란다. 내 점수가 턱없이 모자란 것이 아니라면, 그저 나와 잘 안 맞았기 때문인 것이다. 회사도 그렇다. 똑같은 스펙으로 이 회사는 떨어지고 저 회사는 붙는다. 시험도 마찬가지이다. 공부를 열심히한 순서대로 잘 보는 것은 아니다. 이런 것들 앞에서 좌절했던 경험이 있다면 훌훌 털어버리고 다시 힘내서 곳곳하게 목표를 향해 나아가기를 바란다. 원하던 좋은 결과가 올 때가 분명 있을 것이다.